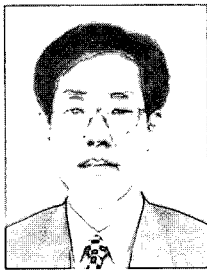


원격(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모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단순히 대학 강의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이버대학의 현황 및 전망

1. 정보통신기술과 고등교육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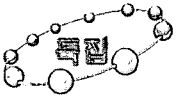
이 상 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체제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대학’은 고등교육부문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대변한다.

사회가 급속히 고도화·정보화 됨에 따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계속교육·재교육 등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 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에,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체제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많은 교육수요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보다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고등교육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만남은 사이버대학(cyber university)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이버대학의 현황

일정한 시설과 공간, 그리고 출석수업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전형적인 대학과는 다른 방송·통신을 매체로 한 전통적인 원격교육(traditional distance education)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달하여 왔다.

사이버대학이란 전통적인 원격교육외에 최근에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고등교육형태를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96년 8월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미래의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대학모형으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을 교육개혁과제로 제시하였으며, '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기존 대학(65개 대학)을 중심으로 사이버대학 프로그램을 시범·실험 운영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 그 동안 사이버대학 프로그램 시범·실험운영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시범·실험운영 형태는 한 대학이 단독으로 사이버대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타 대학이나 기업체 등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한 대학이 특정한 학과나 전공에 필요한 모든 강좌를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비교적 수월한 몇 개의 강좌를 중심으로 타 대학이나 기업체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

즉 대학 또는 컨소시엄별로 몇 개의 강좌를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교육 또는 사이버대학의 개념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교육 또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적용법령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일응 유용한 방법이다.

첫째, 많은 대학에서 현재 운용하는 방식과 같이 기존의 대학에서 사이버교육을 일종의 수업의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전공교육과정(학위과정)의 일부분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의해서 보장 또는 권장되는 형태이다.

둘째, 기존의 대학에서 사이버 교육을 위주로 각종의 학위과정(대학원과정 포함) 또는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현재 숙명여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나, 아주대 경영대학원에서 금년 3월에 사이버 MBA과정(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 경우도 이에 속한다.

두번째의 유형도 현행 고등교육법령상 개설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학위과정의 경우 정원확보 등에 관해서 다른 정규교육과정과 마

찬가지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세번째 유형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하여 “사이버대학” 명의로 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사이버대학 명의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독립된 “사이버대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육부에서는 세번째 유형의 사이버교육을 통하여도 전문대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대학원과정은 불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법(1999. 8. 31 공포)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한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금년 3월 중순 중에 제정·공포되었다.

평생교육법령상으로 ‘원격대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전제와 주 대상은 이른바 사이버대학임은 물론이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사이버)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일반 비영리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기존대학의 병설형태이거나 아니면 독립적 기관으로의 설치가 모두 가능하다.

교육부에서는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설치신청을 받고 금년 상반기 중에 구성될 원격대학 설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빠르면 2001년 3월에는 첫 원격대학이 개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격(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모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단순히 대학 강의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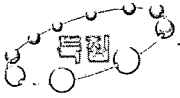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대학이 운영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7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55%에 이르는 1220여개의 대학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기존 대학이 일부 코스를 사이버수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미네소타 대학의 성인교육 프로그램, 위스콘신대학의 중국어 강좌 등이 있다.

둘째 유형은 일반대학이 사이버캠퍼스를 설립하여 대학의 전 과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수업하는 형태로 피닉스대학의 온라인 캠퍼스, 캐나다 뉴브런스윅전문대학의 사이버캠퍼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유형은 기존의 방송대학이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여 일부과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수업하거나 주된 교육매체를 방송에서 컴퓨터통신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넷째 유형은 새로운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는 형태로 미국의 서부가상대학(Western Governors University), 존스인터내셔널대학(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등이다.



3. 사이버대학의 전망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이미 90년대 중반에 “앞으로 30년 이내에”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거대한 대학캠퍼스는 역사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엘리 노암(Eli Noam)은 “10년 이내에 상당부분의 전통적인 대중교육은 상업적이거나 전자적(electronically)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비록 이들의 예언대로 사이버교육이 기존의 대학교육방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지라도 교육에 있어서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사이버교육은 이미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방송기술, 미디어 기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이들 기술 상호간의 결합에 따라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다.

사이버 학습환경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논할 때 우리는 낙관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교육에 대한 장미빛 전망과 함께 항상 그 이면의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교육이 시·공의 제약을 극복하고 특히 전통적 방식의 원격방송교육의 단점(일방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사이버교육을 실행하면서 기술적 인프라의 부족과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부재, 그로 인한 사이버교육의 질적 문제, 인간과 인간의 직접 상호작용(interactivity)에 대한 어려움, 학생의 학습

활동을 확인하는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의 경험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이버교육이 반드시 전통적인 면대면(face to face)교육보다 쉽지도 않고 또한 저렴하지도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편리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방적 사이버교육의 이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기술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제약이 존재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이버교육이 고등교육영역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한 모든 대학교육문제에 대한 만능약은 결코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학생의 진정한 필요와 요구,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학습스타일을 존중하는 사이버교육을 폭넓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학교육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건전한 출발과 발전을 위해서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격대학 프로그램 시범(실험)운영 기관 현황

구 분	기관(대학)	참 여 대 학	참 여 기관
시 범 운 영	부울 가상대 (4개대)	동명정보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부산·울산광역시 현대정보기술
	열린 사이버대(OCU) (11개대)	성균관대, 고려대, 공주대, 부경대, 강릉대, 부산외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삼성 SDS, 중앙일보
	숙명여대	(단독)	
	서울 사이버 디자인대	홍익대, <u>국민대</u>	삼보컴퓨터, 쌍용정보통신, 솔빛미디어
	서울대	(단독)	
	소계 : 5개 기관	19개 대학	8개 기관
실 험 운 영	영진전문대	(단독)	
	한반도가상캠퍼스 (5개대)	숭실대, 서울여대, 인제대, 한림대, 금오공대	LG
	동국대	(단독)	
	한국가상대학연합 (9개대)	전남대, 경북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광운대, 대구대, 경성대, 한국방송통신대	
	서강대	(단독)	현대정보기술
	경상대	(단독)	
	한국온라인가상대 (4개대)	중앙대, 경기대, 대전산업대, 공주문화대	나우콤
	충남대	(단독)	
	한국대학 가상교육연합(KCU) (22개대)	강원대, 전북대, <u>연세대</u> , 경남대, 건국대, 계명대, 관동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삼육대, 상명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한남대, 호남대, 호서대, 한동대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SK텔레콤
	한국외대	(단독)	건한
소계 : 10개 기관	46개 대학	7개 기관	
합 계	15개 기관	65개 대학	15개 기관

* 참여대학의 밑줄 친 대학은 컨소시엄 구성 운영기관 중 대표(주관) 대학임